

양양군 송천 떡마을의 도농교류 준비 이야기

오 형은 대표
(Oh & Oh)

강원도 양양군 송천 떡마을은 2001년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아름마을 시범사업의 강원도의 대표 마을로 선정되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마을 활성화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을의 숙원 사업들을 하나둘 진행시키고 있다. 2002년 8월에 마을 홈페이지(www.songchun.net)를 오픈하여 도시민들과 긴밀한 연계를 꾀하고 있다. 또 만화형식의 새로운 마을조감도를 만들어 마을 홍보에 이용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홈페이지는 이장님과 시범사업 추진협의회 회장님의 인사가 있는 마을이야기와 떡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 떡이야기와 마을내 숙박농가 식사가 가능한 농가가 소개되고 주변의 관광자원을 알려주는 관광&숙박과 홈페이지를 다녀간 사람들과 마을주민이 서로 이야기하는 게시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홈페이지 게시판을 들여다보면 여름 휴가차 마을을 다녀간 관광객들의 고마움이 담긴 글과 태풍 피해를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의 글, 걱정을 감사해하는 마을주민들의 글, 가을 송이버섯을 알리는 글과 함께 송이버섯판매 알리는 글 등이 수시로 오가며 많은 접속률을 보이고 있고, 온라인상의 도시와 농촌간의 직거래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색에서 양양쪽으로 내려가다 삼거리에서 미천골쪽으로 오르는 56번 국도를 타고 구룡령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소나무숲 사이로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송천(松川)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송천리는 소래떡마을로 유명하다.

이 마을의 총 30가구중 15가구가 떡만드는 일을 하며, 관광객들이 직접 떡메를 쳐보고 떡을 빚어보는 체험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떡은 인절미를 비롯해 계피떡(바람떡), 송편, 백설기, 호박고지, 경단, 찹쌀떡, 가래떡, 이바지떡 등 종류도 다양하다. 떡을 반죽할 때 냄새가 배지 않도록 기름이나 물 대신 꿀을 내리고 난 벌집을 쓰는 것이 소래떡의 특징이다.

송천리가 소래떡마을로 유명해진 이유는 두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20년 전 마을에 살던 탁영재씨와 김순덕씨 부부가 전통적인 방식인 떡메로 쳐서 만든 떡을 팔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첫번째 설이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물 캐선 생활이 어렵던 시절 마을 아주머니들이 하나 둘씩 떡을 만들어 오색약수로 신흥사로 행상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두 번째 설도 있다.

소래떡마을의 떡은 깨끗한 물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청정쌀을 생산해 재래식 방법으로 떡을 만들기 때문인지 떡맛 또한 옛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로 전해주고 있다. 인절미의 경우는 직접 떡메를 쳐서 만들기 때문에 추석명절 때만 되면 매스컴에서도 주목하는 곳이다. 계피떡의 경우 직접 농사를 지은 팥을 손수 삶아서 빚는다. 이곳에서 나오는 떡은 모두 송천리에서 직접 농사를 지은 농산물로 만드는 장점이 있다.

점봉산 자락에 위치한 깨끗한 자연환경과 마을 주민들의 함께하는 힘과 떡만드는 부녀회원들의 마을의 자생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시한 마을가꾸기사업은 매력적인 마을환경가꾸기, 활력있는 중심시설 갖추기, 편리한 생활기반 갖추기, 조화로운 마을경관가꾸기로 나뉘어진다.

첫째, 매력적인 마을 주변 가꾸기는 마을의 아름다움, 떡제조 및 체험이 가능함 등을 알리는 이미지가 충분히 부각될 수도록 소박한 쌈지공원으로 마을 입구를 정비하고, 마을거점시설까지 이어지는 마을 안길을 따라 자동차나 보행자 통행에 최대한 쾌적한 환경으로 정비하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마을내에서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수 있는

논둑산책로 조성하고 오색천변에 운동시설, 주차장과 같은 휴양시설 보완하는 사업이다

둘째, 활력있는 중심시설 갖추기는 민속떡을 주민이 공동으로 만들고 판매하는 시설로 관광객이 떡 만드는 것을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떡 빚는 집 구축하고, 회의장, 남녀 구분된 마을 사랑방 등 마을주민을 위한 시설과 관광객을 위한 시설 정비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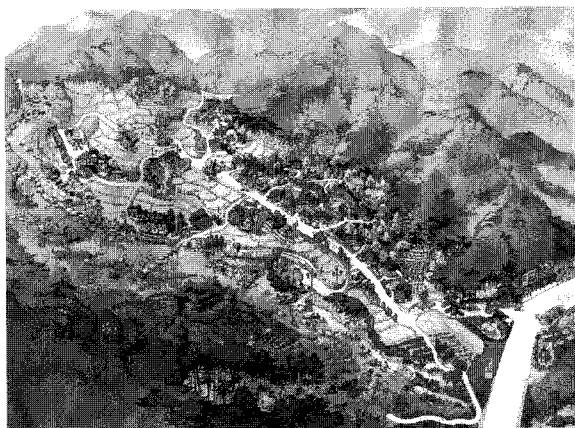
셋째, 편리한 생활기반 갖추기는 상수관의 정비 및 미처리된 하수처리시설 설치하고, 쓰레기 분리, 수집시설 설치하는 사업이다.

넷째, 조화로운 마을 경관 가꾸기는 마을 대표 수종들(교목, 관목)을 선정하여 식재 및 여유구간에 벤치 설치하고, 농가의 외관의 색채와 형태등을 고려한 마을경관 가꾸기 사업이다.

지금 이 마을은 지속가능하고 마을공동체의 소득을 높일수 있는 소래떡마을 가꾸기를 위한 작지만 결코 작지않은 사업들이 조금씩 이뤄져 가면서 도시와 농촌의 교류의 장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



▲ 마을홈페이지 www.songchun.net



▲ 만화형식의 새로운 마을 조감도